



아트플러스 회원 모집

경기도립극단 | 경기도립무용단 | 경기도립국악단 |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기획공연



- ◆ **회원구분** 아트플러스 회원 (3만원)
- ◆ **회원혜택** 후원예술단체 정기·상설공연 초대권 제공 (연 2회 4매)
모든 예술단체 정기·상설공연 및 전당 기획공연 티켓 구매시 공연별 20~50% 할인
주차비 면제(공연관람시) / 회원라운지 무료 이용
- ◆ **가입문의** Tel. 031-230-3246 www.ggac.or.kr



여가문화만남

09 2010 September
GYEONGGI ARTS CENTER MAGAZINE



즐거라 뮤지컬!
The 6th Enjoy Musical! Festival 2010
2010 페스티벌



www.ggac.or.kr

COVER STORY 제6회 즐겨라 뮤지컬 페스티벌 2010 PREVIEW 방귀대장 뽕뽕이 · 첼리스트 양성원 & 피아니스트 에마뉘엘 슈트라세 듀오 리사이틀 · 경기필하모닉 제17회 정기연주회 · 차세대 주역을 위한 협연무대 <명인을 꿈꾸다> 기획 경기도문화의전당 신임 조재현 이사장 REVIEW 2010 여름별빛축제 · 신체악극 <빨간구두>

4K영상과 함께하는 클래식 음악감상회

- 4.22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G. Verdi <La Traviata>
- 5.13 뤼퍼딩크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E. Humperdinck <Hansel & Gretel>
- 6.24 베르디 오페라 <가면무도회>
G. Verdi <Un Ballo in Maschera>
- 7.29 차이코프스키 발레 <백조의 호수>
P. I. Tchaikovsky <Swan Lake>
- 9.30 베르디 오페라 <오텔로>
G. Verdi <Othello>
- 10.28 모차르트 오페라 <돈 조반니>
W. A. Mozart <Don Giovanni>
- 11.25 로시니 오페라 <신데렐라>
G. Rossini <La Cenerentola>
- 12.30 차이코프스키 오페라 <예브게니 오네긴>
P. I. Tchaikovsky <Evgeni Onegin>



해설 장일범
(음악평론가, KBS Classic FM '생생클래식' 진행)

4.22 / 5.13 / 6.24 / 7.29 / 9.30 / 10.28 / 11.25 / 12.30 (목) (총8회)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공연장 오전 10시~12시

주최 경기도문화의전당 GYEONGGI ARTS CENTER
협찬 BEANSBINS COFFEE, 인터파크, LG Pomodoro
관람료 전석 10,000원 (브런치 포함)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티켓예매 인터파크 1544-2344 www.interpark.com · 인포샵 031-230-3440~2 www.ggac.or.kr

2010 토요일기획공연

경기도립국악단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콘서트

추석맞이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음악회
사랑을 나눠요

2010.9.11(토) 오후3시30분 경기도국악당(한국민속촌입구)

관람요금 일반 10,000원 / 청소년 5,000원(할인 적용 없음)

3인 이상 가족 동반시 5,000원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동반 1인 · 아트플러스 회원 50%

신세계포인트카드 소지자 40% 할인

전통문화교육강좌 수강생 · 20인 이상 단체 30% 할인

공연예매 인터파크 1544-2344 http://ticket.interpark.com

공연문의 경기도립국악단 기획실 031)289-6471~3 www.ggad.or.kr

예술과만남

Gyeonggi Arts Center
Magazine

2010 September

예술과만남 통권 제73호

발행인 조재현
편집자문 이건왕
편집장 조경호
기획·편집 임선미
사진 이은주
발행처 재단법인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7
T.031-230-3200 F.031-230-3248
디자인·제작 온누리기획



09 GYEONGGI ARTS CENTER MAGAZINE 2010 September

C O N T E N T S

COVER STORY 08 제6회 즐겨라 뮤지컬 페스티벌 2010

PREVIEW 10 방귀대장 뽕뽕이
12 첼리스트 양성원 &
피아니스트 에마뉘엘 슈트라세 듀오 리사이틀
14 경기필하모닉 제117회 정기연주회 <라흐마니노프 음악여행>
16 차세대 주역을 위한 협연무대 <명인을 꿈꾸다>

기획 18 경기도문화의전당 신임 조재현 이사장

MEMBERSHIP 20 경기도문화의전당 9월 공연 할인안내
21 경기도문화의전당 아트플러스 회원 모집안내

REVIEW 22 2010 여름빛축제
24 신체악극 <빨간구두>
26 2010 서머 페스티벌
28 경기도립무용단 <태권무무 달하>

문화복지 30 '구리장애인복지관' 사랑의 문화나들이

대관공연 32 뿌리파예술단 전국 투어 공연
33 추석특집 남진 콘서트 <님과 함께 45년>

GGAC NEWS 34 경기도립극단 거창국제연극제 참가

GGAC 오시는 길 35 경기도문화의전당 / 경기도국악당



2010 09

경기도문화의전당 9월공연일정

GYEONGGI ARTS
C E N T E R
C A L E N D E R

대 공연장
소 공연장
경기도국악당
야외공연장
대전시장
소전시장
컨벤션센터

※공연일시가 변동되거나 공연
자체가 취소될 수 있으니 관람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ggac.or.kr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2	3	4
			청소년예술제 09:00~17:00 / 010-8903-8342 한양대학교 입시설명회 19:00 / 02-2220-0075 아기돼지 품퐁이 11:00 / 031-289-6424	청소년예술제 09:00~17:00 / 010-8903-8342 경기도 서화대전 010-2843-6056	청소년예술제 09:00~17:00 / 010-8903-8342 어린이 주식회사 08:30 / 02-541-0080 경기도 서화대전 010-2843-6056	수원전국학생음악콩쿨 09:30 / 010-2026-9126 경기도 서화대전 010-2843-6056
5	6	7	8	9	10	11
경기도 서화대전 010-2843-6056 엄마아빠랑 전통문화나들이 10:30 / 289-6433	어린이뮤지컬 '공주님의 달' 10:10, 11:00 / 011-9138-2069 경기도 서화대전 010-2843-6056 생그린수원 신제품교육 09:40 / 02-554-3891	어린이 뮤지컬 '방귀대장 뽕뽕이' 10:30, 16:00 / 031-280-3274 경기타악기양상블 정기연주회 19:30 / 011-314-1507	어린이 뮤지컬 '방귀대장 뽕뽕이' 10:30, 16:00 / 031-280-3274 사화복지기법식 13:30 / 010-6430-7125 아기돼지 품퐁이 11:00 / 031-289-6424	수인음악여정 20:00 / 010-3192-4939 제19회 경기도서예대전 011-297-3900	영화속의 오페라 이야기 19:30 / 010-6388-9313 경기도 도시농업심포지엄 14:00 / 031-250-3227 제19회 경기도서예대전 011-297-3900	양성원 듀오 콘서트 19:30 / 031-230-3264 제19회 경기도서예대전 011-297-3900 국악단 토요일 15:30 / 031-289-6472
12	13	14	15	16	17	18
제19회 경기도서예대전 011-297-3900	오월엔 결혼할거야 19:30 / 031-230-3274 제19회 경기도서예대전 011-297-3900	수원시립합창단 제129회 정기연주회 19:30 / 010-4123-2579 경기도 등문화예술제 13:00 / 010-7288-9483 제19회 경기도서예대전 011-297-3900	뿌리째 공연 'BEAT' 19:30 / 011-349-6082 서진주 교향기무악 19:30 / 010-9737-2445 세무사 직원친절교육 13:00 / 031-202-0208 아기돼지 품퐁이 11:00 / 031-289-6424	한국전력과 함께하는 희망사랑콘서트 19:30 / 010-9117-8194 한국가곡의 밤 19:30 / 031-255-2533 명인을 꿈꾸다 19:30 / 031-289-6472	수원시향 제203회 정기연주회 19:30 / 016-737-8290	
19	20	21	22 추석	23	24	25
제16회 경기국악제 19:30 / 010-4277-8631 제16회 경기국악제 19:30 / 010-4277-8631				남진 45주년 콘서트 15:00, 18:00 / 010-7134-1581	이정란 개인전 016-9344-2967	파워레인저 엔진포스 11:00, 14:00, 16:30 / 010-3441-2307 즐거라 뮤지컬 페스티벌 16:00, 19:30 / 031-230-3266 이정란 개인전 016-9344-2967
26	27	28	29	30		
파워레인저 엔진포스 11:00, 14:00, 16:30 / 010-3441-2307 이정란 개인전 016-9344-2967	수원중앙플룙피아어 자선음악회 19:30 / 010-3731-4063 즐거라 뮤지컬 페스티벌 16:00, 19:30 / 031-230-3266 이정란 개인전 016-9344-2967	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 14:00 / 019-393-7772	즐거라 뮤지컬 페스티벌 16:00, 19:30 / 031-230-3266 아기돼지 품퐁이 11:00 / 031-289-6424	제1회 대한민국 장애인 음악제 18:00 / 010-8669-1364 클래식 음악감상회 10:00 / 031-230-3264		

Cover Story

제6회 즐겨라 뮤지컬 페스티벌 2010

제6회 즐겨라 뮤지컬 페스티벌 2010

The 6th Enjoy Musical! Festival 2010

뮤지컬 전공 대학생들이 함께하는 즐거라 뮤지컬! Festival !!

한국대학뮤지컬교수협의회(회장 류태호)에 소속되어있는 회원 대학들이 참여하는 뮤지컬 축제로 뮤지컬학과(전공)교수와 학생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본격적인 대학 문화콘텐츠 축제 프로그램으로 2005년 개최되어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다.

이 축제는 우리나라 대학에서 본격적으로 뮤지컬을 전공하는 Pre-Professional들이 참여하는 뮤지컬 축제이다.

생동감 있는 뮤지컬, 참여하는 뮤지컬, 젊은 뮤지컬 Festival !!

2010년 제6회 즐겨라 뮤지컬 페스티벌은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공연장에서 더욱더 재밋고 화려하게 관객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뮤지컬 공연들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젠 산업화가 된 뮤지컬을 이끌어갈 인재들의 새로운 등용문이 된 <즐거라 뮤지컬 Festival>과 함께 뮤지컬 축제를 즐겨 보기 바란다.

글 | 윤준오(공연기획팀)



ENJOY MUSICAL FESTIVAL

Info

공연일정 2010. 9. 25(토) ~ 10. 10(일)
공연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공연장
주 최 (재)경기도문화의전당
한국대학뮤지컬교수협의회
주 관 즐겨라 뮤지컬 페스티벌 집행위원회
세부일정
명지대학교 <유린타운>
2010. 9. 25(토) pm4:00 / pm7:30
여주대학 <명성황후>
2010. 9. 27(월) pm4:00 / pm7:30
송원대학 <맨 오브 라만차>
2010. 9. 29(수) pm4:00 / pm7:30
서울예술대학 <캐시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2010. 10. 2(토) pm4:00 / pm7:30
한양여자대학 <Gala concert_ ladies night>
2010. 10. 4(월) pm4:00 / pm7:30
동아방송대학 <Gala concert_ show me the musical>
2010. 10. 6(수) pm4:00 / pm7:30
목원대학교 <Grease>
2010. 10. 8(금) pm4:00 / pm7:30
청강문화산업대학 <Fame>
2010. 10. 10(일) pm4:00 (1회공연)
폐막식
2010. 10. 10(일) pm 7:30

명지대학교_유린타운

물 부족에 시달리는 가상의 도시에서 벌어지는 화장실 사용권에 대한 이야기로, 도시의 시민들은 정부가 공인한 기업인 배설주식회사가 독점하고 있는 유료급수를 이용해 생리현상을 해결하며 살고 있다. 돈을 내지 않고 정해진 장소 이외의 다른 공간에서 용변을 보는 사람들은 한번 들어가면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유린타운'으로 보내진다.

여주대학교_명성황후

서막은 1896년 히로시마 법정의 장면으로 시작한다. 명성황후 시해 주범 12명에게 재판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 판결을 내리고 일본의 힘을 과시하는 웅장한 코러스가 울려 퍼진다. 이를 회한의 눈으로 지켜보단 대원군이 비운의 왕비 명성황후를 추억하기 시작한다.

송원대학교_맨 오브 라만차

1965년 뉴욕에서 초연을 한 <맨 오브 라만차>는 40여년 전에 만들어진 뮤지컬이라는 것이 믿기지않을 만큼 세련된 형식과, 오늘날에도 공감할 수 있는 주제의식으로 관객들의 사랑을 받아온 작품이다.

극은 교회에서 세금을 징수하려다가 신성 모독죄로 끌려온 세르반테스와 그의 시종 산초가 지하 감옥에 내동댕이쳐지는 것으로 시작된다. 새로운 인물이 끌려오면 자기들끼리 재판을 벌이는 사나운 죄수들은 약해 보이는 세르반테스를 조롱하며 그의 짐을 빼앗고, 그 안에 들어 있는 원고를 불태우려한다.

세르반테스는 '정식 재판'을 요청하여 원고에 대한 화형 판결을 유예시키고, 자신이 쓴 희곡을 죄수들과 함께 공연하기 시작한다.

서울예술대학_캐시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부제 The last five years

<캐시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부제: 라스트 파이프 이어스)>는 소설가 제이미 젊은 배우들에게 밀려나며 자리를 잃어가는 뮤지컬 배우 캐시의 사랑 이야기다.

이 작품은 캐시와 사랑에 빠지는 스물셋의 제이미와 5년간 사랑을 해온 스물여덟 캐시의 시간이 반대로 맞물려가며 두 사람의 아픔답지만 슬픈 사랑을 그려내었다. 5년의 시간을 거치며 사랑의 끝을 발견하는 제이미, 5년의 시간을 거슬러가며 제이미와의 사랑을 발견하는 캐시. 두 사람의 사랑을 통해 연인간의 배려와 소통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과연 우리 삶에 행복한 결말의 사랑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Preview

방귀대장 뽕뽕이



2010 어린이 뮤지컬 방귀대장 뽕뽕이



어린이업계의 최대 히트 상품! 어린이들에게 가장 친숙한 캐릭터 <방귀대장 뽕뽕이>가 2010년, 뽕뽕이 탄생 10주년을 맞아 경기도문화의전당을 찾아온다. 2000년 EBS의 특집 프로그램으로 시작된 <방귀대장 뽕뽕이>는 어린이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그 해 9월, 단독 프로그램으로 개편되었고,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어린이들의 큰사랑을 받으며 인기리에 방송되고있다.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뮤지컬 <방귀대장 뽕뽕이> 역시 매 공연마다 매진 행렬을 이어오며, 어린이공연계의 '홍행불패' 뮤지컬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였다. 특히 이번뮤지컬 <방귀대장 뽕뽕이>는 '뽕뽕이' 캐릭터 탄생 10주년기념작으로,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하고 완성도 높은 공연이 무대에 올려질 예정이다. 이번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펼쳐질 어린이 뮤지컬 <방귀대장 뽕뽕이>는 기존의 타 어린이 공연과는 차원이 다른 '어린이만을 위한 완벽한 에듀테인먼트'를 구현, 어린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감동과 재미, 신나는 놀이, 그리고 동요 합창을 통한 교육적인 효과라는 삼박자가 고루 갖춰진 어린이달 최고의 에듀테인먼트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Info

공연일정 2010. 9. 7(화) ~ 8(수)
10:30 / 16:00 (총4회 공연)
공연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공연장
티켓가격 뽕뽕이석(R) 3만원 / 짜잔형석(S) 2만원
치치석(A) 1만원
티켓매매 티켓파크 1544-2344 www.interpark.com
공연문의 인포삼 031-230-3440~2 www.ggac.or.kr

시놉시스

버블과 특수효과로 꾸며진 환상적인 무대 위로 뽕뽕이와 친구들이 하나, 둘 등장하며 신나는 동요 싱어롱(sing-along) 시간이 벌어진다. 친구들이 모인 장소는 거인이 사는 정원. 어느 날 정원에 풀과 나무들이 점점 시들어 가고, 뽕뽕이와 친구들은 거인의 정원을 되돌리기 위하여 희망의 씨앗을 찾아 모험을 떠난다. 탐험의 여정으로 많이 힘들기도 하지만, 친구들의 우정과 협동심을 통해 희망의 씨앗을 찾아 거인의 정원으로 돌아온다. 정원의 풀과 나무들은 다시 살아나고, 거인은 즐거움을 되찾았으며, 뽕뽕이와 친구들은 아름다운 노래로 화답한다.

등장인물

뽕뽕이 아이들의 귀여운 친구 뽕뽕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다 마법 방귀로 해결하는 귀여운 천사인형 짜잔형,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희망의 씨앗을 찾아 떠난다.
짜잔형 뽕뽕이의 가장 절친한 형, 아이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주는 착한 동네 형, 뽕뽕이와 친구들과 함께 긴 모험을 떠난다.
치 치 뽕뽕이를 꼭꼭이 아끼고 지구 환경을 걱정하는 뽕뽕이의 친구이다.
그 외 뽕순이와 뽕뽕이 카오 등 친구들(총 11명)



기존의 어린이 공연들은 잊어라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어린이만을 위한 에듀테인먼트의 진수를 보여준다.

어린이들에게 가장 친숙한 캐릭터 '방귀대장 뽕뽕이'가 탄생 10주년을 기념해 뮤지컬로 재탄생된다. '방귀대장 뽕뽕이'는 2000년 방송프로그램으로 첫 선을 보인 이후, 말 그대로 '돌풍'을 일으키며 어린이업계 최대 히트 상품으로 성장해 왔다. 어린이들에게 가장 친숙한 이 캐릭터를 뮤지컬화 함에 있어, 기존 어린이 뮤지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하여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교육적이면서도 아이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최고의 '에듀테인먼트'를 준비하고 있다.

어린이 공연 최초! 오직 어린이만을 위한 콘서트가 시작된다!

하루에도 수십 편씩 무대에 올려지는 그 많은 어린이 공연들 중 오직 어린이만을 위한 콘서트가 있었던가. 어린이 뮤지컬 <방귀대장 뽕뽕이>는 '뮤지컬 디하기 콘서트', 이 두 마리의 토끼를 한번에 잡을 수 있는 어린이 공연계 최초 콘서트형 뮤지컬이라 할 수 있다. 공연에 앞서 19곡의 편곡된 친근한 동요들을 춤추며 따라 부르는 '싱어롱 타임'이 바로 어른들의 콘서트 못지않은 현장을 재현해 낼 것이다. 콘서트를 연상케 하는 '싱어롱 타임'은 본격적인 공연에 앞서 공연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어 놓을 것이다.

육지와 바다를 넘나드는 스펙타클한 '모험의 세계'로의 초대!!

뮤지컬 <방귀대장 뽕뽕이>는 세계 명작 동화 이자 어린이들의 필수도서라 할 수 있는 '거인의 정원'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거인의 정원 에서부터 시작되는 뽕뽕이와 친구들의 모험은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정글로 까지 이어진다. 그 길고 험난한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무대와 객석을 장악하는 바다 속 거대한 대형 문어, 환경을 생각하고 쉽게 따라 만들 수 있도록 재활용 소품을 활용해 제작한 정글 속의 악어떼, 뽕뽕이와 짜잔형을 태우고 무대 위를 나는 커다란 종이비행기 등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갖가지 요소들을 만나게 된다. 한 시간 남짓 바로 눈앞에서 펼쳐질 스펙타클한 모험의 세계가 지금, 어린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유아계의 아이돌, 짜잔형 전파출연!

유아계에도 어린이들이 열광하는 아이돌 스타가 있다! 바로 뽕뽕이의 가장 친한 형이자 어린이들의 절대우상, 짜잔형! 뮤지컬 <방귀대장 뽕뽕이>에서는 이렇게 동방신기와 소녀시대의 인기를 능가하는 짜잔형 최동균씨가 전파공연에 출연하여 어린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매일 TV를 통해서만 보아왔던 짜잔형이 눈앞에서 들려주는 숲 속 나라에서 펼쳐지는 모험과 상상의 이야기! 생각만해도 어린이들에게 가슴 벅치는 최고의 경험, 그 자체가 될 것이다. 감동과 재미, 신나는 놀이, 그리고 동요 합창을 통한 교육적인 효과라는 삼박자가 고루 갖춰진 최고의 에듀테인먼트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 글 | 조연주 (공연기획)

Preview

첼리스트 양성원 & 피아니스트 에마누엘 슈트로세 듀오 리사이틀

첼리스트 양성원 &
피아니스트 에마누엘 슈트로세
듀오 리사이틀

Sung-Won Yang & Emmanuel Strosser Duo Recital

Info

공연일정 2010. 9. 11(토) 19:30
공연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공연장
출 연 양성원
에마누엘 슈트로세 (Emmanuel Strosser)
티켓가격 R석 3만원 / S석 2만원 / A석 1만원
50% 65세 이상 장애인 할인(동반 1인 가능)
30% 기업체 및 단체 관람, 학생 할인(동반 1인 포함)
20% 전당 아트플러스 회원, 아이플러스(plus)카드
티켓예매 인터파크 1544-2344 www.interpark.com
공연문의 인포샵 031-230-3440~2 www.ggac.or.kr

12 • Gyeonggi Arts Center Magazine

풍부하고 깊이 있는 톤과 뛰어난 선율감각의 소유자
찬란한 기교와 대담한 표현은 코다이 음악의 웅대함을
최고조로 느끼게 한다. _ 영국 Gramophone

그는 경지에 이른 예술가이다.
웅장한 사운드, 유려하면서 강력한 연주력의 소유자이면서도
추호의 음악적 허영을 찾아볼 수 없다. _ 영국 The Sunday Times

넘치는 상상력과 빛나는 테크닉,
한치의 틀림도 없는 정확한 음정의 연주. _ 미국 Washington Post

Program

슈만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5개의 민요풍 소곡 Op. 102
F. Schumann
Five pieces in Folk Style for Cello and Piano Op. 102

브람스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e 단조, 작품번호 38
J. Brahms
Sonata for Cello and Piano in E minor Op. 38

슈만
첼로를 위한 판타지슈트 Op. 73
F. Schumann
Phantasiestucke for Cello and Piano Op. 73

브람스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 2번 F장조 Op. 99
J. Brahms
Sonata for Cello and Piano in F Major Op. 99

풍성한 가을 9월, 지적이고 독창적인 해석과 연주로 세계 주요 언론과 청중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는 첼리스트 양성원과 실내악 연주자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에마누엘 슈트라세가 전당을 찾는다. 중저음의 풍부한 음량의 첼로와 그 풍부함을 감싸주듯 매끄러운 피아노 선율이 관객들의 감동을 자아낼 예정인데, 특히 첼리스트 양성원은 국제적인 솔리스트로서 그리고 실내악 전문 연주자로서 뉴욕의 링컨 센터, 카네기 홀, 워싱턴 DC의 테라스 극장, 파리의 살 플레엘, 살 가보우, 일본의 오페라 시티홀 등 세계 굴지의 유명 연주장의 공연에서 호평을 받았다. 또한 프랑스, 영국,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핀란드를 비롯한 유럽 각지,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북미와 남미, 호주, 일본, 중국 등에 초청되어 연주하고 있다.

유니버설 뮤직의 전속 아티스트로서 슈베르트 작품집을 런던에서 녹음하여 테카 레이블로 발매하였으며, 오랜음악의 벗 피아니스트 파스칼 드보이용과 함께 EMI에서 베토벤 첼로 소나타 전곡집 발표라는 귀중한 결실을 맺기도 하였다. 특히 코다이의 작품집을 EMI를 통해 발표하여 영국의 The Sunday Times와 세계적인 음악전문지인 그라모폰지 등으로부터 극찬을 받은 적도 있다. 2006 올해의 예술상, 2009년 제4회 대원음악연주상, 제1회 객석예술인 상을 수상한 양성원은 서울 태생으로 파리 음악원과 인디애나 대학에 수학하여 최고연주자 과정을 취득했으며, 명 첼리스트 야노스 슈타커의 애제자로 그의 조수를 역임하였다. 현재 연세대 음대 교수로 재직 중인 그는 끊임없는 도전 의식과 왕성한 연주 활동으로 세계를 향하여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피아노 연주자로 활약할 에마누엘 슈트로세(Emmanuel Strosser)는 파리음악원 출신으로 각종 콩쿨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실내악 연주자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끌레르 데세르, 장 프랑스와 에세르, 레지 파스퀴에, 라파엘 올렉, 블라드미르 멘델스존, 로망 귀요, 프랑소와 뮐로, 이자이 콰르텟, 아티스 콰르텟, 프라작 콰르텟 등 많은 연주가들과 연주 활동을 해오고 있다.

또한 그는 정기적으로 유럽과 멕시코, 남아메리카, 일본, 한국, 미국 등지에서 리사이틀의 솔리스트로 무대에 설 뿐 아니라 주요 프랑스 오케스트라를 비롯해 유럽 북부, 이탈리아 등지의 오케스트라들과 협연하고 있다. 그는 에비앙, 라 로크 당테 롱, 프라드, 쿠모 같은 주요 페스티벌에도 참가해 왔다. 현재는 파리음악원의 알랭 플라네의 조교수로 활동 중이다. ◆ 글 | 이상현(공연기획팀)

Preview

경기필하모닉 제117회 정기연주회 〈라흐마니노프 음악여행〉



경기필하모닉 제117회 정기연주회
라흐마니노프 음악여행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 러시아 태생의 이 작곡가는 19세기 낭만주의의 감성으로 20세기를 살다 간 인물이다. 아름답고 서정적인 멜로디와 러시아적 감수성, 그리고 애수와 낭만이 묻어나는 그의 작품들은 가을을 많이 닮았다.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제117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9월 11일 오후 4시 이천아트홀에서 열린다.

피아노의 거장 아비람 라이케르트와 경기필 예술단장 금난새의 지휘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협주곡 제2번과 교향곡 제2번을 연주하여 경기 남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경기도민에게 폭넓은 음악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청명한 가을날의 초입, 라흐마니노프의 음악으로 그의 감성을 흠뻑 느껴보는 건 어떨까?  글 | 박동용(경기필하모닉 기획실장)

피아니스트 아비람 라이케르트

A V I R A M
L E I C H E R T



깊이 있고 지성적인 해석, 탁월한 테크닉과 매력적인 음색의 피아니스트 아비람 라이케르트는 1997년 빈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쿨에서 동메달을 수상하여 국제 무대에 두각을 나타냈다. 제1회 동아 국제 피아노 콩쿨 1위(1996년), 프랑스 에피날 국제 콩쿨 대상(1995) 외 일본 국제 음악 콩쿨(1995), 쾰른 국제 음악 콩쿨(1993), 브레멘 국제 피아노 콩쿨(1996)에서 우승하며 연주가로서의 탁월함을 인정받은 아비람 라이케르트는 일본과 한국에서의 수상경력으로 인하여 극동 지방 연주 투어를 활발히 하게 되고, 도쿄 필하모닉, 도쿄 메트로폴리탄 오케스트라, NHK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리고 대구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과의 성공적인 연주로 아시아 지역의 많은 팬을 확보하였다.

그는 지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 미시간주의 그랜드 밸리 주립대학 피아노과 부교수와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를 역임하였으며, 2009년 3월부터는 서울대 학교 교수로 재직중이다. 스타 인웨이 아티스트인 아비람은 텔아비브의 루빈 뮤직아카데미에서 아리 바르디를 사사했다.

Info

공연일정 2010. 9. 11(토) 16:00
공연장소 이천아트홀
출연 지휘 금난새
연주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협연 피아노 아비람 라이케르트
소요시간 120분
티켓가격 R석 3만원 / S석 2만원 / A석 1만원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관람가

Program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다단조, 작품18
S.Rachmaninoff Piano Concerto No.2 in c minor, Op.18
I. Moderato(보통의 빠르기)
II. Adagio sostenuto(느림을 유지하듯)
III. Allegro scherzando(빠르고 익살스럽게)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제2번 E단조 작품27
S. Rachmaninoff Symphony No.2 in e minor, Op.27
I. Largo-Allegro moderato(매우 느리게-보통의 빠르기)
II. Scherzo-Allegro molto(익살스럽게-매우 빠르게)
III. Adagio(우아한 느림으로)
IV. Finale Allegro vivace(피날레 빠르고 활차게)



경기도립국악단 제87회 정기연주회 차세대 주역을 위한 협연무대 '명인을 꿈꾸다'

경기도립국악단 제87회 정기연주회 '차세대 주역을 위한 협연무대- '명인을 꿈꾸다'가 16일(목) 오후 7시30분 경기도국악당 공연장에서 개최된다.

우리음악의 미래 주역으로 성장해 나갈 국악인재 발굴 및 양성이라는 취지로 매년 개최되는 연주회로, 명실공히 우수 국악인재 발굴의 최고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한 '명인을 꿈꾸다'가 올해로 10년을 맞아 그 의미가 남다르다. 올해부터는 한국음악과 서양음악에 이어 국악작곡까지 영역을 넓혀 독창적 예술의 작품발표 기회 제공은 물론 우리 국악분야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어 우리음악의 레퍼토리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전국에서 기량이 출중한 63명의 전공자들로부터 엄격한 오디션 심사를 거쳐 선발된 금번 협연자들이 대한민국의 음악계를 이끌어 나갈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국악단과 협연무대가 전문 음악인으로 나아가는데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우리음악의 미래를 가능해 볼 수 있는

젊음과 열정으로 빛나는 차세대 주역들의 무대

열정과 패기의 상징인 우리음악의 차세대 주역인 젊은 국악인의 꽃꽂이와 신선함이 묻어나는 무대로, 그동안 같고 닮았던 기량을 펼치며 그들의 개성 가득한 음악 세계를 선보이는 자리이다. 이번 무대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발된 총 7명의 전공자들의 무대로 관현악(작곡), 가야금, 거문고, 해금2, 대금, 모듬북으로 구성된다.

경기도립국악단의 노련한 관현악 연주에 신예들의 신선하고 열정적인 선율이 조화를 이루어 관객들에게 우리 음악의 밝은 미래를 예고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 글 | 박성혜 (경기도립국악단 기획담당)



Info

공연일정 2010. 9. 16(목) 19:30
공연장소 경기도국악당
출 연 지휘_조광석, 연주_경기도립국악단
 작곡_정원기, 가야금_오수진, 해금_송현수
 대금_박희진, 거문고_이봉희, 해금_윤하림
 모듬북_이우성
티켓가격 전석 1만원
 도내 도서관 회원증 소지자 10%
 CJ푸드아이나팩토리 회원증 소지자 20%
 전통문화교육강좌 수강생·20인 이상 단체 30%
 아트플러스 회원 40%
 65세 이상 노인·국가유공자
 장애우 동반 1인 50%
공연예매 인터넷 1544-2344 ticketinterpark.com
공연문의 경기도립국악단 기획실
 031-289-6471~3 www.ggad.or.kr



지휘 조광석 작곡 정원기 가야금 오수진 해금 송현수



대금 박희진 거문고 이봉희 해금 윤하림 모듬북 이우성

공연내용

- 1. 관현악 '바라본 눈' 초연 (작곡/정원기)**
 나 공간을 거닌다. 바라본다. 무언가 발견한다. — 눈으로 인지된 상황은 마음으로 향하는 걸까 — 발견하는 것에 따라 마음의 요동이 다르다. 요동의 흐름에 따라 감정이 다르다. 그리고 그 감정으로 다시 바라본다 사소한 것 일지도 모르는 느끼에 수반하여 음악을 풀었고, 맺었다. 이렇게 상황을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가끔은 재미있다.
- 2. 가야금협주곡 '한[파랑가]' (작곡/정동희 가야금/오수진)**
 신라시대의 화랑이었던 기파랑의 높은 인격을 노래한 충담사가 지은 한가로 기파랑은 당시 화랑지 도자로 추정된다 삼국통일 후 100년이 지난 후에 지어진 곡으로 화랑의 정치적 입지는 내리막길 이었고 정신적으로는 음풍영월에 빠져 유약했던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기파랑을 찬양한 것은 화랑의 전성기에 대한 향수에서 화랑의 정신과 모습을 다시 다짐하고자 했던 의도로 볼 수 있다. 현대에 사는 젊은이들이 화랑의 정신과 모습을 통해 시련이나 역경에 굴하지 않는 패기를 지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곡이다.
- 3. 해금협주곡 '상생' (작곡/조원형 해금/송현수)**
 '상생'은 시나리오에 의해 제작된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 다분히 드라마틱한 음악이며 대중들의 보편적인 코드와 욕구에 부합하는 음악이다 '상생(相生)'은 오행설(五行說)에서 생성의 원리 또는 그 관계를 의미한다. 이 곡에서는 해금과 관현악이 서로 돕고 보완하며 조화로운 우리 음식의 맛을 보여주고자 하는데 이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 및 상생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4. 서용석류 대금산조와 관현악 (편곡/김희조 대금/박희진)**
 한주한 선생의 원가력에 서용석의 음악성을 더해 구성된 산조로, 판소리를 가장 충실하게 표현한 음악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또한 다양한 조를 가지고 있어 어떤 산조보다도 극적인 표현력과 시김새가 매우 탁월하다.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엇모리, 동살풀이까지 총 6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 5. 거문고협주곡 '소엽산방' (작곡/황병기 편곡/김대성 거문고/이봉희)**
 '소엽'은 낙엽을 쓴다는 뜻이다. 즉 '소엽산방'은 낙엽이 쓸어져 수북이 쌓인 풀을 쓸면서 사는 사람의 산방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산방의 운치를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악기가 거문고일 것이다. 거문고산조와 정악의 어법을 융합시켜서 도가풍의 신묘한 가락을 만들고자 하였다. 선율이 전통적 이면서도 기인한 진행이 많고 반응 사용과 중심음의 이동이 자주 나타난다. 무현(無絃)과 대현(大絃)의 개방음을, 선율을 앞꾸미는 저음으로 사용하는 것도 전통음악에서는 없던 새로운 것이다. 느리고 불규칙한 리듬으로 시작하여 중용 속도의 도드리장단과 복잡한 리듬의 엇모리(10/8)를 거쳐 자진모리로 고조된다
- 6. 해금협주곡 '다량쉬' (작곡/김대성 해금/윤하림)**
 '다량쉬'는 제주도의 초천면에 있는 산 이름으로 달(다량)산(쉬)이란 이름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자연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선조들의 고단한 삶을 표현한 곡이다. 제주도 역사속에서 이름 없이 죽어간 분들을 위로하는 곡으로, 슬픈 곡조를 유지하고 있다. 제주도 지역의 선율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우리음악의 '계면선율'을 염두해 두고 작곡한 작품으로 리듬은 9/8박자로 이루어져 있다.
- 7. 모듬북협주곡 '타(打)' (작곡/이경섭 모듬북/이우성)**
 모듬북과 관현악의 협연곡으로 타악기의 강렬한 비트와 관현악의 풍부하고 섬세한 선율이 잘 조화된 곡이다. 모듬북의 화려하고 힘있는 소리가 국악관현악과 함께 잘 융화될 수 있도록 작곡되어진 곡이다.

기획

경기도문화의전당 신임 조재현 이사장



경기도문화의전당
신임 조재현 이사장

‘부드러운 카리스마’ 때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강렬한 눈빛’. ‘배우 조재현’ 하면 생각나는 화려한 수식어 들이다. 더불어 연극 ‘에쿠우스’, 영화 ‘나쁜남자’, 그리고 드라마 ‘뉴하트’, ‘피아노’, ‘눈사람’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뇌리에 남겨진 장면과 다수의 대표작품도 떠오른다. 1986년 KBS 공채 13기로 데뷔한 이래 이미 25년차가 된 중견 베테랑 배우로 작품마다 카리스마 넘치고 개성있는 연기로 그만의 아우라를 뽐아왔다. 그런 그가 경기도문화의전당 최고수장을 맡으며 경기도의 공연 문화예술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문화의전당은 지난 20여년간 당연직 이사장을 도지사로 하여 기관을 운영해 왔다. 그러던중 경기도는 민선 5기 출범과 더불어 민간 전문가를 이사장으로 위촉하여 분위기를 쇄신하고 보다 전문성있는 기관운명을 통해 도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조재현 신임 이사장을 선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7일, 외부 인사 초청 없이 간소하게 치러진 공식 취임식과 함께 임기가 시작됐다. 텔레비전 브라운관과 스크린, 공연장 무대를 종횡무진 해 온 그의 모습만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번 인사가 의아했을 수 있지만, 아마도 최근 몇 년간 그가 경기도 문화예술사업에 함께 해왔던 전문인사라는 사실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어서 일 것이다. 이미 2년전부터 경기도 산하기관격인 경기공연영상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해 왔으며, 지난해 사회적으로 부각된 ‘제1회 DMZ 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올해 9월은 ‘제2회 DMZ 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의 개막을 앞두고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배우로서뿐 아니라 문화예술에 대한 열정과 경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미 연극을 대중화시키는데 크게 일조했다고 평가받는 ‘연극열전’의 프로그램머로도 활동하면서 다양한 작품을 무대에 올리기도 했고, 여전히 작품 활동에도 매진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는 무엇보다 경기도문화의전당이 생동감있고 살아 숨쉬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의기투합하여 다양한 공연 콘텐츠를 개발해 내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또한 시대와 상황에 걸맞게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주부나, 노인, 직장인 등 성별, 세대별로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으로 경기도문화의전당이 적극 활용되도록 할 계획도 갖고 있다. 특히나 연천, 가평, 양평 등 지역적으로 문화소외감을 느끼는 도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하니, 경기도 전역에 걸쳐 문화바람이 이는 것은 시간문제 일 듯.

취임사에서 조 신임이사장이 강조했던 “진정성을 갖고 치열하게 일 한다면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포부를 함께 품고, 향후 경기도문화의전당에 속한 직원들과 도립예술단원이 함께 아름다운 산물을 만들어 내기위한 항해를 시작한다. 많은 기대와 시선이 집중돼 있는 만큼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남겨진 과제다. ◆ 글 | 임선미(문화사업팀)

G G A C

MEMBERSHIP

● 경기도문화의전당 9월 공연 할인안내

기획 공연

방귀대장 뽕뽕이

- 일 시 2010년 9월 7일(화) ~ 8(수) 10:30 / 16:00
- 장 소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공연장

Art +
회원 20% 할인

첼리스트 양성원 & 피아니스트 에마뉘엘 슈트라세 듀오 리사이틀

- 일 시 2010년 9월 11일(토) 19:30
- 장 소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공연장

Art +
회원 20% 할인

국악인형극 '아기돼지 쫄쫄이'

- 일 시 2010년 9월 8일(수) 11:00
- 장 소 경기도국악당

Art +
회원 20% 할인

즐거라 뮤지컬 페스티벌

- 일 시 2010년 9월 25일(토), 27일(월), 29일(수)
- 장 소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공연장

Art +
회원 20% 할인

예술 단 공연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117회 정기연주회

- 일 시 2010년 9월 11일(토) 16:00
- 장 소 이천아트홀

Art +
회원 30% 할인

경기도립국악단 토요일기회

- 일 시 2010년 9월 11일(토) 15:30
- 장 소 경기도국악당

Art +
회원 50% 할인

경기도립국악단 제87회 정기연주회 '명인을 꿈꾸다'

- 일 시 2010년 9월 16일(목) 19:30
- 장 소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공연장

Art +
회원 40% 할인

대관 공연

추석특집 '남진 45주년 콘서트'

- 일 시 2010년 9월 25일(목) 15:00 / 18:00
- 장 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공연장

Art +
회원 10% 할인

G G A C

MEMBERSHIP

● 경기도문화의전당 아트플러스 회원 모집안내

경기도문화의전당 아트플러스 회원을 모집합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 아트플러스 회원이 되시면 각 예술단 공연 초대권 및 할인의 혜택이 있으며 기타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경기도문화의전당이 되겠습니다.

회원 구분

아트플러스 회원 : 1구좌 (3만원) · 아트플러스 골드회원 : 100구좌이상 (300만원)

회원 혜택

경기도립국단 · 경기도립무용단 · 경기도립국악단 · 경기필하모닉
후원예술단체 정기 · 상설공연 초대권 제공 (년 2회 4매)

경기도문화의전당 (리듬양상블 포함)

모든 예술단체 정기 · 상설공연 초대권 제공 (년 2회 4매)

공통혜택

모든 예술단체 정기 · 상설공연 및 전당 기획공연 티켓 구매시 공연별 20~50%할인
(공연당 4매) / 월간지 「예술과 만남」 우편발송 및 명단표기
개인회원 카드 발급 / 주차비 면제(공연관람시) / 회원라운지 무료 이용

회원기간 승인일로부터 1년

회원계좌 경기도문화의전당 농협 301-0041-4473-51

접수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문의전화

경기도문화의전당 아트플러스 회원담당 Tel. 031-230-3246 Fax. 031-230-3275 www.ggac.or.kr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7번지 경기도문화의전당 (우)442-835

※ 아트플러스 회원 안내 및 기타 관련 모든 문의사항은 경기도문화의전당 아트플러스 회원담당에게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여름이 되면 그동안 많은 분들이 관람하셨는지 “이번 별빛축제는 언제 시작하는가?”에 대한 문의전화도 심심치 않게 오고는 한다. 몇해 공연을 진행하는 동안 관람층도 다양해 졌다. 시행 첫해에는 초·중·고생이 많았지만 올해에는 가족단위 및 연인들의 관람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올해 공연의 또 다른 성과라고 한다면, 홍보비용을 절감하고 공연시기가 여름휴가의 절정인 7월 31일부터 8월 5일 시기에게 중복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관객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물론 올해의 기상상태 등으로 관람객 수는 전년보다는 평균 약 10~15% 정도 감소하였지만 공연기획에 있어서 여러 좋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별빛축제〉를 인식하고 또한 기대하고 있는 관람객을 조성한 부분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또다른 〈별빛축제〉만의 매력은 변화무쌍한 여름날 일기(天氣)에 있다. 특히 야외공연장의 특성상 비는

기다리며 공연을 과감히 감행했다. 비로 인해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공연은 진행되었으며, 공연이 끝나갈 무렵 내리는 비는 연주자와 관람객의 열정을 식히기에 역부족이었다. 비가오는 가운데 공연을 마치고, 무대 스태프들은 다시금 지난해의 추억을 되새기며 또 다시 비를 맞으며 무대를 정리하였다.

매년 〈별빛축제〉를 기획할 시기가 되면 다른 즐거운 고민에 빠져든다. 어떤 작품을 할 것인지, 공연기간은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 과연 관객들은 어떠한 영화를 좋아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공연은 출연자가 주인공이 아닌 관람객이 주인공이다. 주인공인 관객들이 찾아와 즐기잖는다면, 앞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질 주인공의 역할은 점점 줄어들지 모른다. 끝으로 이 글을 독자들이 주인공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내년을 기대한다. ◆ 글 | 우정호(예술단지원팀)



시원한 열기속으로 2010 여름별빛축제

지난 2008년 “지친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난 후 TV를 보기에는 무언가 아쉬움이 남는 이 여름밤에 시원 곳에서 경제적인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무엇인가가 없을까?” 하는 스스로의 질문에 우리는 고민하기 시작했다. 특히그 해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여름휴가를 포기하거나 짧게 다녀오는 추세라는 기사가 줄을 이었을 때이다. 우리 경기도문화의 전당이 〈여름 별빛축제〉라는 타이틀로 여름밤 도립예술단의 공연과 함께 온 가족과 이웃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 등으로 공연을 시작한지 올해로 벌써 3회가 되었다. 도민들에게는 공연장의 문턱이 낮음을 보여줄 수 있음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는 한편, 경기도립예술단의 우수한 작품을 선보일 기회가 되었다.

공연의 불청객이 아닐 수 없다. 이번 공연도 무더위로 인한 잦은 소나기로 인하여 공연이 취소되는 일이 있었다. 다섯째날 도립국악단의 공연이 리허설을 마치고 5시반쯤 부터 내린 비로 인하여 음향기기와 악기들이 비에 젖어 공연이 취소되었다. 많은 분들이 찾아와 아쉬워하며 돌아가셨고, 문의전화도 많지와 공연취소를 말씀드리는데 많은 고충(?) 있었다. 다른 야외공연에는 비가 오는 적이 없지만 유독 전당의 야외공연장과는 인연이 없으신 경기팝스 앙상블의 공연도 비를 피해 갈 수는 없었다. 리허설을 마치고 내린다는 표현보다는 쏟아진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의 비로 인해 공연을 취소하려고도 했지만 다섯째날의 아쉬움을 다시 드리기에는 부담이 컸던지라 공연직전까지

Review

신체악극 <빨간구두>

신체악극 <빨간구두> 신체극, 뮤지컬·동화나 결함은 모색하다

지난 7~8일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공연장 무대에 오른 극단 몸풀의 신체악극 '빨간구두'는 신체극과 뮤지컬의 이분법을 넘어 공존의 길을 보여줬다. 난해하게만 느껴지는 신체극, 여기에 대중에게 친숙한 뮤지컬적 요소를 도입한 '신체악극'으로 연극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일단 신이면 춤을 추지 않고는 못 배긴다는 안데르센의 동화 '빨간구두'에서 모티브를 따온 것도 관객들의 이해를 도왔다. 극단 몸풀의 '빨간구두'는 우연히 빨간구두를 신게 된 소녀 카렌이 여기저기를 다니다 발목을 잘라내고서야 겨우 춤을 멈추게 된다는 잔혹동화 '빨간구두'를 현대 시점에서 재해석했다.



보이고 싶고, 주목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여자 정혜는 빨간 구두를 신고 욕망의 나라로 여행을 떠난다. 이 과정에서 발을 잘라 신발에 맞추려는 구두가게 주인이나 눈물을 흘리기 위해 양과 겹질을 벗긴다는 사내처럼 욕망과 집착으로 뒤틀린 인물들과의 만남이 펼쳐진다.

작품은 시종일관 '보이는 것이 본질보다 더 중요한가'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 관객들은 '얼짱', '몸짱' 열풍이 거세지고 외모로 개인의 우열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루키즘(lockism)이 만연한 세태를 돌아보게 된다.

혹시 당신은 옷과 신발, 화장 등을 동원해 온갖 방법으로 외양을 가꾸는 데만 몰두하고 있지 않은가. 닭가슴살과 단백질보충제를 먹으며 만들어진 초콜릿복근에 열광하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내면과 외면의 아름다움 가운데 어떤 것이, 순간적으로 만든 그럴싸해 보이는 복근과 건강하게 다져진 탄탄한복근 중 어떤 것이 본질인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신체악극 '빨간구두'가 그 해답을 말해 준다. 여주인공 정혜는 발가락을 자르는 고통까지 감내하며 매혹적인 빨간구두를 선택하지만, 욕망과 집착 뒤에 가려 보이지 않던 본질을 깨닫

는 순간 망설임없이 신발을 벗어던진다.

무대는 움직이는 인형과 세트 전체가 전환되며 유기적으로 활용된다. 탁자 밑이나 장롱, 욕조 같은 은밀한 공간을 통해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천장에 매달린 전등갓과 줄 달려 길게 늘어진 마이크는 배우들이 무대 전체를 날아다니며 신체극의 진수를 펼치는 도구로 쓰인다.

깊이있는 신체극으로 주목받아 온 극단인 만큼 몸짓이나 동작, 춤으로 극을 끌여가는 배우들의 표현력이 특히 돋보였다. 침묵의 언어, 비언어적인 소통만이 뿜어내는 매력을 유감없이 발산했다.

극 초반 관객을 가장한 채 공연장에 앉아있던 정혜가 갑자기 무대로 등장하고, 구두 가게 주인은 신발이 발에 맞는 관객을 찾아 다니며 관객과의 소통을 시도한 점도 좋았다. 하지만 대사와 노래의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후반부는 관객이 극의 흐름을 따라가기가 어려웠다. 정혜가 그토록 원하던 빨간 구두를 버리는 과정이 좀 더 설득력있게 그려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 글 | 이효선(중부일보 문화부기자)

Review | 2010 서머 페스티벌



저녁과 감동이 가득했던 2010 서머 페스티벌



벌써 4회째를 맞는 서머 페스티벌, 특히 올해는 8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이라는 기간 동안 18팀의 클래식 연주자 및 단체가 참여하여 하루에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에서 동시에 열린 큰 규모의 행사였다.

이번 서머 페스티벌에서 찾아 볼 수 있었던 특징은 전년 페스티벌 때와는 달리 오페라 갈라콘서트, 정통 오케스트라 연주와 정통 챔버 앙상블, 콰르텟과 트리오로 이루어지는 실내악, 영화음악과 대중음악을 클래식 악기로 재해석한 퓨전음악, 관악 앙상블 그리고 타악 앙상블, 국악과 합창 등 아주 다양한 클래식 장르를 한 곳에 모아 관객들로 하여금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학을 맞이한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각 연주자들이 해설을 곁들여서 교육

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는 점 또한 눈여겨 볼 일이었다. 한가지 더 언급하자면 국내의 우수 연주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최고 1만 5천원부터 최저 5천원까지 상당히 저렴한 관람료가 관객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갔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단체로는 경기 필하모닉 챔버 앙상블, 경기도립국악단, 상하이 신포니에타 등 18팀으로 그 중 모차르트 오페라 '사랑의 묘약'을 성악가들의 열창과 함께 갈라 형식으로 보여준 '코레아나 클라시카 오케스트라', 부드럽고 감동적인 선율로 슈베르트 '송어'와 멘델스존 피아노 트리오 작품 49번을 연주한 '폴리 앙상블'이 서머 페스티벌의 첫 날을 장식하였다.

(사)수원음악진흥원의 산하 단체인 미오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쇼스타코비치의 축제 서곡 등을 비롯하여 Duo Ryu의 모차르트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과 첼리스트 고봉신의 생상스 첼로 협주곡을 무대에서 함께 연주하였다. 창단 20주년이 되어 실내악팀으로는 그 역사가 깊은 '콰르텟 21'이 모차르트, 푸치니, 드보르작, 드뷔시의 현악 4중주곡들을 통하여 그들의 관록 있는 음악을 무대에서 펼쳐보이기도 하였다.

방학을 맞이한 청소년들을 위한 해설음악회로 유명한 JK 앙상블은 헨델과 비발디 등 바로크 시대 음악부터 벤자민 브리튼의 현대음악까지를 레퍼토리로 삼아 매곡마다 해설을 곁들이며 청소년 관객들이 클래식을 쉽게 접하게끔 도와주었고 관악기의 저음 파트를 담당하는 튜바와 유포니엄으로만 이루어진 앙상블 엘렉토스가 바하의 G선상의 아리아, 로시니 오페라 '윌리엄 텔' 서곡을 비롯하여 튜바와 유포니움을 위한 곡들로 유명한 존 스티븐스 곡들로 무대를 채웠다. 코리안 필하모닉 팝스 오케스트라가 만들어 내는 클래식 악기의 사운드와 전자 악기 사운드의 미묘한 하모니를 통하여 영화 '러브스토리' 등에 나오는 음악과 비틀즈의 'Hey, Jude', 셀린 디온의 'Power of Love' 등이 연주되었으며 피아니스트 이민영의 리사이틀에서는 체르니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그리고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 전곡이 연주되기도 하였다. 난파소년소녀합창단은 밝고 맑은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가곡과 오라토리오들을 선보였고 경기 필하모닉 챔버 앙상블은 더블 베이스 앙상블, 실내악 9중주 등 색다른 편성으로 신선한 실내악 음악을 들려주었다. 예성 하모니 오케스트라는 정통 클래식 음악뿐만 아니라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영화 '스타워즈' 주제곡 등을 연주하여 관객들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고, 이 트리오에는 일반적으로 편성되어진 트리오 곡들이 아닌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오페라 '카르멘' 아리아, 피아졸라의 '망각', 비틀즈 모음곡 등으로 장르를 오가며 연주하여 퓨전 느낌의 실내악음악을 연출하였다.

지휘자 슈중의 지휘로 상하이 신포니에타는 오페라 '돈 조반니' 서곡과 모차르트주피터 교향곡을 선보이며 거의 완벽에 가까운 하모니로 감흥을 주었고 컴파스 타악기 앙상블은 마림바를



주악기로 여러 타악기들의 때로는 맑고 때로는 둔탁한 사운드의 하모니로 타악기만이 가지는 매력을 한껏 발산하였다. 경기도립국악단과 중국 조선족 민악단이 같은 무대에 올라 한국과 중국의 음악을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경기도립국악단의 시크릿 가든과 자바 민요, 키사스 키사스 키사스 연주는 퓨전 음악의 진수를 보여주기엔 충분하였고 중국 조선족 민악단은 한국에서는 자주 볼 수 없는 옥류금과 장세납이라는 악기를 통하여 신선한 사운드로 관객들을 눈과 귀를 주목시켰다. 또한 이태리 칸초네 음악을 전문적으로 연주하는 페르 칸초네는 다양한 작곡가의 작품으로 각기 다른 분위기의 무대를 연출하기도 하였다.

서머 페스티벌 마지막 날에는 양주시립교향악단이 주페의 경기병 서곡, 멘델스존의 이탈리아 교향곡 등을 연주하고 피아니스트 노희재와 함께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을 그리고 상하이 뮤직 콘서트바토리 교수인 소프라노 신디 왕이 출연하여 오페라 '잔니 스키키', 오페레타 '베리 위도우'에 나오는 아리아로 무대를 장식하였다. 정통 트리오 단체인 '트리오 아도'는 베토벤 피아노 트리오 '대공'과 아렌스키 작품의 피아노 트리오로 그 대미를 장식하였다.

전년보다 훨씬 늘어난 일정과 장르, 단체들이 출연하여 자칫 허술한 무대와 프로그램으로 공연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잠식시키고 연주자들의 화려한 연주력을 바탕으로 탄탄한 기획력과 실수와 오류를 줄이려는 부단한 노력 등이 2010 서머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한 요인이라 여겨지며 내년에도 짜임새 있고 재미와 감동이 가득한 서머 페스티벌이 기획되어 도민들에게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글 | 이상현(공연기획팀)

Review

경기도립무용단 <태권무무 달하>

경기도립무용단 <태권무무 달하>
세종문화회관에서
힘찬 날개짓!

2010년 8월, 경기도립무용단의 대표 브랜드인 <태권무무 달하>가 26, 27일 양일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성공적인 공연을 마쳤다.

<태권무무 달하>는 2008년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공연장에서의 초연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국립극장 주최로 열린 '세계국립극장페스티벌' 무대에서 '관객을 한 눈에 사로잡을 수 있는 작품'으로 인정받았으며, 올해 역시 국내·외 수차례의 공연을 통하여 세계무대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한 작품으로 우리 무용계의 패러다임을 바꿔 놓았다.

이번 <태권무무 달하>는 초연이후, 수정과 보완을 거쳐 태권도 무예에 우리춤의 아름다운 춤사위를 조화시킨다는 명제에 충실하면서 완성도 있는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의상, 영상, 음악, 퍼포먼스에 한층 더 공을 들여 지금까지보다 명실공히 진일보한 작품으로 거듭났다.



경이로운 움직임 세계로 뻗어나갈 무한한 가능성!

암전된 공연장에서 거대한 무대의 메인막이 오르자 숨죽이며 지켜보던 관객들은 천천히 무대속으로 빠져들었다. 아무것도 없던 무(無)의 세계에서 태초남과 여, 하늘, 땅, 물, 불을 상징하는 신들의 탄생을 배경으로 예술적이면서도 서정적인 듀엣장면에 시선이 모아진다. 특히 '약육강식' 장면은 포식자의 두려움에 떠는 나비와 개구리, 그리고 먹이사슬의 중간자인 뱀과 독수리 그리고 마지막 인간까지의 구성은 역동적인 비주얼과 화려함으로 풀어냈다.

또한 고구려 고분벽화에 등장하는 소재를 이용하여 선무도, 태권 그리고 태권도의 변천과정을 그린 구성은 관객의 오감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달하'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날개짓하다!

그동안 <태권무무 달하>는 매 공연마다 의미있는 노력과 성과가 뒤따랐지만 이번 한국 공연문화의 중심지인 세종문화회관에서 의 성공은 그 의미가 크다.

그것은 경기도립무용단이 대중과의 호흡과 교감에 많은 자신감을 얻은 것이며 이를 발판으로 세계시장을 두드릴 수 있는 에너지를 발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런 성과야말로 경기도립무용단이 지난 3년여의 시간동안 땀과 노력으로 일구어 낸 경이로운 성과물이 아닐까 생각된다.

앞으로도 <태권무무 달하>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로 뻗어나가 우수한 우리춤의 가능성을 전세계에 보여 줄 수 있기를 바란다. ◆ 글 | 박수연 (경기도립무용단 기획담당)

문화복지 | 사랑의 문화나들이

구리장애인복지관과 함께하는 경기도문화의전당 '사랑의 문화나들이'

연일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러 있던 8월 4일 아침. 해가 떴을법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창밖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의 기온이 미미한 것을 보니 구름이 잔뜩 끼어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더위 속에서도 경기도문화의전당(이하 전당)의 문화복지사업인 '사랑의 문화나들이'에 경기 구리장애인복지관(이하 구리복지관) 어린이들이 함께하기로 약속된 날이어서 내심 걱정부터 앞섰다.



아니나 다를까. 밖에 나가보니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구리복지관까지 전당버스와 외부 임차버스가 이동해야 했고, 오전 7시가 조금 넘은 시각 전당버스에 올랐다. 전당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랑의 문화나들이'는 도내 복지시설 및 기초생활보호대상을 위한 문화복지 사업이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공연문화예술을 접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무료 공연 관람기회를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매년 5,000여명에 이르는도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 날은 구리시에 위치한 장애인복지관 장애우아이들과 지도교사 65명을 위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고, 경기도문화의전당 국악당에서 진행되는 국악인형극 '덩 덩 쿵따쿵' 감상과 국악기 체험과 점심식사 등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 놨다. 그런데 오랜만에 나들이에 나서는 장애우와 인솔교사들에게 주룩주룩 내리는 비는그다지 반가운손님이 아니었다. 구리복지관에 도착하니, 예정돼 있던 인원보다 적은 50여명의 장애우와 인솔선생님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나 휠체어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은 비가 내리면 이동이 어려워 참가를 못하게 됐다는 말에 아쉬움과 괜스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두 차로 나눠 탄 아이들은 1시간 조금 넘는 이동시간 내내 재잘재잘 상기된 기분을 대화로 나눴고, 발음은 정확치 않지만 나들이에 나서며 좋은 기분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의 마음도 읽을 수 있었다. 그렇게 용인에 위치한 국악당에 도착하니, 거짓말이라도 한 듯 땅은 바짝 말라있고, 땀땀 요란하게 울어대는 매미소리가 아이들을 반기고있다.

공연시작시간까지 여유가 있어 아이들은 국악당 로비에 마련된 악기체험 현장을 돌며 직접 만져보고 소리도 내보며 해금, 아쟁, 가야금 등 난생 처음 접하는 국악기에 신기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또한 야외마당에 펼쳐져 있는 굴렁쇠와 투호놀이, 재기차기 등을 하며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을가졌다.

오전 11시 공연을 시작하는 본종이 올리고, 40여분간 진행된 국악인형극 '덩 덩 쿵따쿵' 이 시작되자아름다운소금의 선율이 객석을 가득 메운다. 옛관을 둘러맨 옛장수 아저씨와 함께 우리 음악과 춤사위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무대에 펼쳐지자 아이들의 시선이 고정된다. 큰맘 먹고 나선나들이인만큼 흥에 겨워 함께 손뼉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흐뭇한 감동이 밀려들었다.

전당에서 준비한 도시락으로 점심을 함께 나누니 어느덧 오후 1시가 훌쩍 넘었다. 평소 다양한 체험에 목말랐던 만큼 복지관 아이들과 인솔선생님들에게 축축한 문화의 단비를 드리워준 하루였다. ◆ 글 | 임선미(문화사업팀)



GGAC

대관공연



2010년 사단법인 뿌리파예술단 전국 투어 공연

Dance Meets Percussion Arts BEAT

작품의도

공연장을 날려버릴 듯이 폭발하는 리듬과 비트, 비상하는 천마를 연상시키는 화려한 연주자들의 현란한 손놀림과 역동적인 동작들, 하늘을 열고 땅을 울리며 포효하는 북들의 웅장한 울림이 모든 것을 날려 버리는 소리의 에너지 눈과 귀와 몸을 한꺼번에 만족시키는 불가리아 바로 Dance Meets Percussion Arts BEAT인 것이다.

사단법인 뿌리파예술단의 Dance Meets Percussion Arts BEAT 공연은 모든 것이 리듬과 움직임이다. 인간의 한계를 느낄 정도로 빠른 리듬과 비트, 연주자의 기교, 테크닉이 어우러져 폭발하는 에너지, 독창적인 안무와 전혀 새로운 비트, 현란한 기교 그리고 하나의 소리를 낼 수 있는 팀 워크가 한 데 어우러져 최고의 공연을 만들어 간다. 타악은 누구나 연주해 볼 수 있지만 다양한 타악기들을 조합할 때 우리는 단순히 그것들의 리듬감이나 음색만을 고려하는게 아니라 그것들이 갖는 시각적 충격들도 생각하게 한다. 뭔가 시각적으로 더 흥미로울 수 있는 요소는 없는지. 음악적으로 흥미로운 원기를 만들려고 노력함과 동시에 다이내믹 하면서 관심있는 요소를 삽입 하려고 노력하며 리듬을 디자인 한다. 연주자들의 일상불란한 리듬의 교차, 또한 전통가락에 익숙한 연주자들의 현란한 변주 능력은 뿌리파예술단 음악의 힘있고 가슴을 뛰게 만드는 연주의 불가리를 더욱 배가시킨다 그들은 리듬을 디자인한다 북을 이용해 리듬을 디자인하고 움직임으로 바람을 그린다.

Dance Meets Percussion Arts BEAT 공연은 한국 타악의 역동적인 리듬과 전통 무용의 예술적인 움직임만이 존재하며 그 리듬과 움직임을 연주자들 이 디자인하며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성을 자극 하여 최고의 예술적 경지로 끌고 나아가 10대에게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신나는 리듬과 비트에 몸을 실으라고 말하고, 20대에게는 감각적이고 파격적인 새로운 아이디어에 눈뜨게 하며, 30~40대에게는 절망적이고 무리한 일상으로부터 탈출해 새로운 희망으로 튕겨 오르라고 부추긴다. 또한 연령대별로 다른 감수성의 차이를 뛰어 넘어 온 가족이 함께 같이 발구르며 흥분하고 즐거워하며 모든 스트레스를 단번에 날려버리고 온몸을 휘감는 전율과 흥분을 느끼게 될 것이다.

공연장
2010년 9월 15일(수) 19:30

공연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공연장

티켓가격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주최·주관 사단법인 뿌리파 예술단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문화체육방송통신위원회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사)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공연문의 02-335-6478 www.puripae.or.kr



GGAC

대관공연



추석특집 남진 콘서트

님과 함께 45년

영원한 “진행형 가수” 남진

대중의 영원한 연인 남진은 가수로서 “님과 함께”, “동지”, “그대여 변치 마오”, “미워도 다시 한번”, “가슴 아프게”, “꽃분이”, “마음이 고와야지”, “어머님 사랑” 등 이루어 셀 수 없을 정도의 주옥 같은 히트곡들로 45년 동안 우리와 함께 기쁨과 애환을 노래 했다.

남진은 영화배우로서도 “저 언덕을 넘어서”, “애장이 꽃 피는 계절”, “어머님 전상서” “형수” 등 많은 영화에 출연하여 대중스타로서의 면모를 뽐내기도 했다.

영원한 대중의 스타 남진은 금년에도 45주년 기념 앨범을 발표하는 등 쉼 없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추석특집 고품격 콘서트 <님과 함께 45년>을 부모님과 함께

그의 히트곡 가운데 하나인 “님과 함께”속에 나오는 “님”은 돌아켜보면 바로 우리 팬들이었으며 대중들이었다. 노랫말처럼 남진과 우리는 “저 푸른 초원 위에서 한 백년”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그가 영원한 “님”이듯 그에게는 바로 우리들이 “님”이다.

효의 도시 수원에서 추석특집으로 펼쳐질 이번 공연은 오랜 기간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팬들에게 최고수준의 무대를 선사 할 것이며, 더욱이 부모님께서는 추석명절 최고의 효 선물이 될 것이다.

공연장
2010년 9월 23일(목) 14:00, 18:00

공연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공연장

티켓가격

VIP석 88,000원 / R석 77,000원
S석 55,000원 / A석 33,000원

10%할인 : 문화의전당 유료회원

30%할인 : 장애인 1~3급 동반 1인까지,

4~6급 본인만 / 국가유공자(본인만)

*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미 지참 시 현장에서 차액 현금 지불

주최 라이브아트

공연문의 1544-9857



GGAC NEWS

경기도립극단 거창국제연극제 참가



거창국제연극제의 2박3일 “경기도립극단” 열기 속으로

경상남도 거창군 수송대에서 열광적인 관객들과
한여름밤의 폭염과 폭우도 물리치는 경기도립극단공연 “사랑장터”

올해 7월 30일부터 8월 15일까지 경남 거창군 수송대 일원의 야외극장에서 펼쳐진 거창국제연극제는 17일간 국내외 50여개의 연극팀이 약200회에 걸친 공연으로 장대함과 다양한 감동을 맛볼 수 있는 자리였다. 국민관광지라는 지리적 특성상 가족들과 즐거운 휴양지에서의 휴가를 만끽하고 단순히 먹고 마시는 소모적인 휴가문화를 거대한 스케일의 문화컨텐츠를 접하게 하는 지역적 큰 축제로 명실상부 자리매김 해온 이번 축제에 경기도립극단이 초청됐다.

8월 11일과 12일 밤 야외 거북극장에서 펼쳐진 경기도립극단의 '사랑장터' 공연은 태풍을 동반한 폭우 속에서도 관객들이 우의를 입고 공연이 끝날때까지 공연을 관람했으며, 식을 줄 모르는 한여름밤의 축제열기를 한층 더 만끽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글 | 김성수(경기도립극단 기획담당)



GGAC 오시는 길

경기도문화의전당



지하철 수원역 하차 후 시내버스(20분 소요)나 택시(10분 소요) 이용
버 스 <출발지> 수원역 4번 출구 : 92, 92-1, 83, 83-1, 82, 82-1, 15, 51
서울 시청 7000 (수원법원 하차/ 83-1, 82-1) / 7001 (전당 하차)
강남 3001 (수원법원/83-1, 82-1) / 3007 (전당 하차)
잠실 1007 (수원법원 하차/83-1, 82-1)
<도착지> 경기도문화의전당 후문 하차 : 92 갤러리야/경인일보 앞 하차 : 15, 51, 52, 82, 82-1, 83, 83-1
외환은행 앞 하차(도보 5분) : 15, 92, 92-1
자가용 동수원 톨게이트 → 광주수지방향 → 주유소 끼고 우회전 → 월드컵경기장 방향 → 시청방향으로 계속 직진 → 고가도로를 지나 갤러리야 사거리 좌회전 → 좌측 경기도문화의전당 도착
북수원 톨게이트 → 동수원사거리에서 직진 → 시청사거리에서 시청방향으로 좌회전 → 갤러리야백화점 사거리에서 직진 → 수원톨게이트 → 수원방향으로 좌회전 → 법원사거리에서 좌회전 → 경기도문화의전당 후문 도착



경기도문화의전당 국악당



자가용 고속도로이용 수원, 신갈톨게이트로 나와 우회전 용인방향으로 진행, 신갈오거리서 한국민속촌 방향으로 우회전 후 2km정도 오면 됩니다.
국도이용 서울 → 오산간 또는 수원 → 용인간 도로를 지나 신갈오거리에 도착, 한국민속촌 방향으로 2km 정도 오면 됩니다.

